

아·태 대회, 스포츠 전설과 함께

조직위, 국내·외 참가선수 위해 뜻 깊은 자리 마련

팬사인회·원포인트레슨·시연회 등 특별이벤트 제공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개막과 동시에 일부 종목에서 국내·외 참가선수들을 위한 특별이벤트를 마련 중이다. 올림픽메달리스트 등 전·현직 체육계 레전드 스타가 대회를 찾아 대회에 참가한 생활체육동호인과 함께 평생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우리 대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양궁 박성현(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배드민턴 정소영(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김동문(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수영 이창하(1996 애틀랜타올림픽, 한국신기록), 탁구 현정화(1988 서울올림픽, 금메달)가 종목별 경기장에 참가해 선수들에게 팬사인회를 진행하고 13일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를 빛낼 예정이다.

아울러, 양궁종목에서는 박성현 홍보위원과 함께 윤미진(2006 도하아시아게임), 이성진·박경모(2004 아테네올림픽) 선수가 참가등록해 생활체육인과 기량을 겨루면서 원포인트레슨을 진행한다.

농구종목에서는 우지원(1997 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 김아름 선수가 팬사인회와 원포인트레슨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대회의 풍성함을 한층 더 할 예정이다.

사격종목에서는 '사격의 신' 진종오(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수, 스위스종목은 류원희

(아시아 마스터스 스쿼시 챔피언십) 선수, 하키종목은 이남용(2014 아시아 게임) 선수가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역도종목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자웅을 겨뤘던 대한민국역

도가 금지약물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게 하고, 2012년 런던올림픽 은메달의 진짜 주인이 된 김민재(2012 런던올림픽) 선수가 참가 등록해 동호인과 함께 기량을 겨루고 원포인트레슨을 진행한다.

또한 우수종목에서는 서희주(2017년 세계우수선수권대회) 선수, 이하성(2014 인천아시아게임) 선수가 대회에 참여하는 참가선수들을 위해 시

연회를 선보이고, 포토타임을 진행한다.

조직위 이강오 사무총장은 "단순한 생활체육대회를 넘어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에게 각 분야의 레전드 스타가 함께 어울어져 기량을 겨루고, 땀 흘려 운동할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평생 잊지 못할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준환, 프랑수아 하판 제이 '동메달' 이준환(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고티에 프랑수아(캐나다)와 경기하고 있다. 이준환은 업어치기 한판으로 프랑수아를 꺾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태 마스터스 개회식, 시내버스로 안전하고 편하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관영에서는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회 개회식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전주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조직위에서는 개회식 당일 시군경기장 및 숙소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수송하는 대회 수송버스 8대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개회식에 예상보다 많은 1만5,000여명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전주시와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개회식 시작 전과 행사 종료 후 각각 시내버스 10대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행하기로 했다.

13일 개회식 당일, 전주시내버스 10대 증차 운행키로 조직위·전주시·시내버스공동관리위 최종 협의 마쳐 평화동종점-전동성당-전주월드컵경기장 구간 증차

이번 증차 운영을 위해 전주시(버스정책과)에서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의 상징성을 고려해 노선번호를 2023번으로 신설하고 BS(버스정보 시스템)에 노선 등록을 마쳤다. 2023번 버스는 기존 1994 버스와 동일 노선으로서 개회식 당일인 5월 13일 16시부터 10분 간격으로 10대가 평화동 종점에서 출발하며 전동성당시

외고속버스터미널-전북대 등을 거쳐 월드컵경기장까지 약 18.2km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관람객이 하차한 후에는 2시에 개회식이 끝나고 동시에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던 10대가 동일 노선으로 순차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개회식에 맞춰 운행되는 2023 노선의 세부 운행정보는 전주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jonjuunit.gakr)와 휴대전화 어플 '전주버스'를

통해 실시간 버스위치와 배차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개회식을 찾는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3개소(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전주공고)를 임시주차장으로 추가로 확보했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에서는 관람객들이 교통 불편없이 대회 개회식을 찾아볼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마쳤으며, 대회를 방문한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대회 기간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체육국제종합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금빛 희망 전북, 함께하는 김제서'

시, 도민·장애인 체육대회 포스터·슬로건 확정

김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제시 민운동장 등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포스터(사진 왼쪽)와 장애인체육대회 포스터



전북도민체육대회 포스터(사진 왼쪽)와 장애인체육대회 포스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를 상징하는 포스터와 슬로건 디자인을 확정했다.

포스터와 슬로건은 지난 4월에 김제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제시청 홈페이지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김제시청·시민운동장·김제시 수영장 로비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정했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포스터는 80회를 나타내는 그림과 그 안에 김제시를 대표하는 드넓은 평야 등을 표현했으며, 슬로건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새만금 등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전북의 희망을, 김제에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를 통해 180만 전

북도민의 화합 등의 표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로 결정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선정된 상징물을 활용해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 14개 시군 모두가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180만 전북도민이 힐링하는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제대회 앞두고 태권도원서 대규모 합동 소방훈련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경찰서와 아·태 대비 합동 대테러훈련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태권도경기과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 등 대규모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 및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서윤희)와 합동으로 '태권도원 소방훈련'을 지난 10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화재를 대비한 가상 상황을 연출, 태권도 경기 관람 인원 대피와 화재 진화 등을 현장감 있는 훈련으로 진행했다.

12일부터 열리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 중 14일과 15일 태권도 경기에 앞서 실시된 이번 합동 소방훈련에는 장수 소방서 지휘차량과 장비 운반차, 구조서비스를 비롯해 펌프차량과 구조·구급 차량 등 10여 대의 소방 차량이 투입되어 실제 화재 상황을 방불

케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재 발생에 따라 먼저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자위소방대에 의해 대피 안내 및 사이렌 방송, 대피 유도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장수 소방서 1·2차 출동대에 의해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이 펼쳐졌다. 한편 11일에는 태권도진흥재단과 무주경찰서가 아·태마스터스 대회 대비 합동 대테러 훈련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하는 등 국제 대회를 앞두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무주=전문성기자



전주매일 캠페인